

“캄보디아 오지로 ‘귀농’ 해 ‘새마을운동 신화’ 쓰겠다”

김용연·송계영 부부, 고아원·교육 사업에 여성 바치기로

최근 공중과 방송을 통해 ‘타이 거 박’의 이야기가 소개되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했던 그는 은퇴 후 여러 곳에서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농부로 변신, 여성을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불교계에도 ‘타이거 박’ 못지 않은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김용연(61·혜림) 송계영(61·혜림화) 부부. 부부가 여성을 캄보디아에서 회향하기 위해 1월 15일 출국했다.



캄보디아에서의 봉사활동을 위해 1월 15일 출국한 김용연 송계영 부부. 부부는 여성을 캄보디아에서 회향할 계획이다.

남편 김용연 박사(농학)는 KT&G 중앙연구원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해 오다 2006년 12월 31일자로 퇴임했다.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거사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여성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준비했지만 무언가 허전했다. 열심히 살았지만 처자식을 위해서였을 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런 그를 캄보디아로 이끈 것은 아이들의 눈망울이었다. 지난해 9월 캄보디아에서 본 현실은 말 그대로 지저리 공상이었다. 높은 문맹률에 헛웃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며 그는 한국전쟁 직후 우리의 삶을 떠올렸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은 살아 있었다. 그는 그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김 박사 부부가 캄보디아로 ‘귀농’할 뜻을 밝히자 여기저기서 반대했다.

환갑 나이에 오지에서 고생할 것을 염려해서다. 특히 울면서 반대하는 자녀들을 설득하는 데만 4-5개월이 걸렸다.

김 박사 부부는 실천불교전국 승가회(공동대표 성관·효림)의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고아원 및 교육시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식 ‘새마을운동’을 펼칠 생각이다.

농학박사인 자신의 능력을 한

껏 발휘해 현지에 맞는 농법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캄보디아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인층이 많아져야 한다는 점에 착안, 지식인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30여년 전, 지방의 유지였던 아버지가 밭랑 수의 한 벌 걸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불교에 귀의했던 그는, 거사회 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출국했다.

“우리가 부처님 가피로 잘 살아 오고 있지만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국가인증프로그램 획득

파라미타 24개 분야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희)의 ‘문화재모니터활동 24개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증명하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았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국가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문화재모니터활동은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 불교문화 및 역사문화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2007년 파라미타의 문화재모니터활동은 학기 중 주5일 수업제에 대해 진행되며 조계사, 우정총국, 경북공 등 3곳의 문화 유적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02)723-6165

노병철 기자

“봉사 참여할수록 노후 즐겁다”

이용 스님, 노인자원봉사자 200명 연구...원광대서 박사학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천태종 교무국장 이용 스님(오산 황덕사 주지·사진)의 원광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논문의 실문은 2006년 9월 27부터 10월 21일까지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장 빠른 강원도 지역 춘천 동해 원주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76.25%), 과거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다음(69.09%)이며,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69.75%)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노인중 종교적으로



로는 원불교 유교등 기타종교인의 생활만족도가 77.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톨릭 76%, 불교 70.49%, 개신교 67.63%, 무교 67.91%순이었다. 봉사방법으로는 여자 노인의 경우 노력봉사를 가장 많이 했다. 남자 노인은 차량지원 질서 학습 지도 상담 교통지도 순으로 봉사방법을 선호했다. 이용 스님은 “노인의 자원봉사가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사실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포교의 지평 넓히기 나섰다

포교사단, 교육관 개관·각종 신규사업 확정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교육관을 마련해 수행과 교육에 박차를 가한다.

포교사단은 1월 7일 서울 성북구 대원동 내에 마련된 교육관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교육관은 약 200평 넓이의 공간에 다목적 교육관(수행관)과 강의실, 소회의실, 사무실, 합창 및 의식연습실과 기타 활용 가능한 부대시설(조리 및 세면)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관은 필요시 24시간 개방되며 각종 수행과 기도, 교육 목적 외에도 각 분야별 워크숍(세미나), 정기모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02)927-0588-9

한편 포교사단은 이날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불기 255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



임시대의원 총회

시작했다(사진). 주요 사업으로는 △포교-지역사찰과 지역사회 연대활동(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포교사업 확대) △조직-포교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활성화 위한 업무 지원 △교육-포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실시 △기타-지역별 단위사업 지도 등이 확정됐다.

남동우 기자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강원불교련 신홍사서 신년하례법회 봉행

강원불교연합회(회장 정범·월정사 주지)는 1월 9일 속초 신홍사 법전에서 불기 2551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신홍사 회주 무산, 월정사 주지 정범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법회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원법회를 겸해 열렸다. 법회는 삼귀에 이어 신홍사·낙산사 연합합창단 찬불가로 시작했으며 태고종 강원교구 포교원장 법선 스님의 기원사, 정범 스님의 봉행사, 천태종 삼운사 주지 월도 스님의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무산 스님은 “모든 불자와 국민의 마음을 모아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국민축제로 만들어야 하며, 연방 대선도 국민들이 주인공을 잡는 국민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남동우 기자

“미디어센터 역할수행 불교방송의 새 비전”

이사장 종하 스님 취임사서 밝혀

“불교방송의 지방국은 물론 나아가서 영상매체와 활자매체도 함께 하는 경영을 구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불교방송 제5대 이사장 종하 스님은 1월 8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린 취임식(사진)에서 취임법문을 통해 “불교방송 발전의 제2기의 문을 활짝 열어 21세기 공중과 방송에 걸맞는 불교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종하 스님은 또 “불교방송도 자체 사육을 건립해 우리 한국 불교의 명실상부한 미디어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하 스님은 1997년 발생한 불교방송 경리부정사건과 관련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지극도 저의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서울 흥천사 토지 불법매매

조계종, 진상조사 착수

조계종 사찰에서 종단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조계종 호법부장 심우 스님은 1월 10일 서울 흥천사 주지였던 X 스님이 지난해 7월 H주식회사에 흥천사 소유 토지 7필지 15300㎡(4630평)를 100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직후 흥천사 토지매매 관련 서류일체와 주지 직인, 통장 등을 압수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박봉영 기자

금강산 신계사서 세미나

종단협 인권위, 20~2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와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 신계사에서 법회 및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첫째 날 세미나, 둘째 날 신계사 및 법기암터 참배, 셋째 날 만물상·삼일포·해금강 관광 등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성도재일 불자화합축제

대전 비구니청림회

조계종 대전 비구니청림회(회장 영진)는 1월 26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제21회 성도재일 불자화합 대축제를 연다.

부처님 되신날(성도재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법회에서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지리산자연의학교실 강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26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드라망 지리산교육원(실상사 귀선학교)에서 지리산자연의학교실 1월 강좌를 실시한다.

김희윤 녹색대학 자연의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운영위원의 강의로 진행되는 강좌는 △자연의학 개요 및 기초이론 △자연의학의 인체관 △음양오행의 기초 △진단, 정부와 경락 △경락 경험의 이해 △취혈(혈자리 찾기) 실습 △자연의학 실습 등

으로 이뤄진다. 접수마감은 1월 24일까지. (063)636-3776 남동우 기자

스리랑카 복지타운 총괄

담당자 공개모집

조계종은 스리랑카 현지에서 복지타운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선별한다.

지원자격은 영어 혹은 스리랑카어가 가능한 자로서, 스님은 구족계 수지자, 재가자는 불자여야 한다. 근무기간은 2007년 1월 말부터 6월 이전까지. 1월 11일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사회부 국제팀(02-2011-1830)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불 청림회 성도재일 불자화합 대축제 행



대전지역 비구니 청림회(회장 영진스님)는 불기2551년 부처님 되신날(성도재일)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준비하면서 매년 새로운 모습의 대법회 준비와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하고 후학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달하는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성도재일 대법회는 승가원 이사장이신 종범 큰스님을 모시고 대한불교 조계종 대전지역 비구니 청림회스님들의 원력으로 봉행되오니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07년 1월 26일 오후 2시 ◆ 장 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 ◆ 법 사 : 종범스님 (승가원 이사장)
- ◆ 주 회 : 대한불교 조계종 대전 비구니 청림회
- ◆ 후 원 : 동학사 승가대학, 백제불교, 대전시청불자회, 충남도청 불자회, 대전 5개구청 불자회, 경찰 불자회, 운전자 불자회 대전지회,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충북지사
- ◆ 문 의 : 042)541-1505, 222-7090
- ◆ 공 연 : 김영동 외 12명
- ◆ 장학금 전달 : 보문고교 10명 / 충남대학교 포교 지원금



지도법사 : 종범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대전 비구니 청림회 회장 영진 합장